

댐 건설에 대한 찬반 논쟁

1. 댐이 우리에게 주는 것

한 때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선물로서 마치 공짜로 전기를 얻는 것처럼 보였다. 댐은 터빈으로 물을 떨어트림으로써 전기를 만들어 내는데 불과하였다. 물의 공급은 자연이 아낌없이 주는 관대함으로부터 영속적으로 보충되었다. 아무것도 써서 없어지는 것이 없다. 아무것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아무런 오염물질도 대기중으로 내뿜지 않는다.

그리고 댐 뒤에 형성되는 호수는 그 나라의 흔히 말하는 가장 값비싼 자원인 물의 사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관개용으로) 쓸 수 있게 해주며,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을 때(홍수에는) 그것을 가두어 둔다. 흔히 호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물고기의 풍부한 서식처이며, 또한 한발로 강물이 말라붙었을 때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비축물이기도 하다.

2. 댐의 여러 가지 영향

그러나 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나쁜 결함들을 가지고 있다. 댐은 엄청난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리고 댐은 많은 사람들을 억지로 이주시키게 하며, 이들 이주 대상자의 대부분은 호수가 생겨나는 곳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다. 세계은행이 1994년에 추정한 바에 의하면 300개의 "대형" 댐—높이 15m(50피트) 이상과 10m가 넘는 몇몇 댐, 그러나 가장 큰 댐은 이들 크기의 10배나 되는—이 매년 건설되며 약 400만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집을 그리고 흔히 대대로 내려온 그들의 토지로부터 억지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주민의 이주는 대부분의 경우 항상 잘못 계획되고 또한 집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은, 특히 가난한 많은 사람들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그리고 흔히 이것을 또한 수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물을 절약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직업을 만들고 흔히 국가적인 스테이티스 심벌이었다. 그들 댐의 진정한 가치는 몇 십년간 그것에 대한 호의적인 편견으로 판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참된 환경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충격은 설사 그것이 댐의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되었을지라도 매우 드문 일이다. 편익들은 일반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것으로 취급되며 댐 건설의 철회의 결

과에 대응해서 걱정하게 측정되지 못하고 있다.

3. 세월의 흐름과 사고방식의 변화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유행도 변화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댐에 대한 향의가 더욱더 보편화되었다. 부자나라들은 원자로의 건설을 중단시켰으며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공공적인 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시작되어 무작정 선호하던 댐에 대한 평가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다. 몇몇 대형 댐 프로젝트들은 공사를 중도까지 진행시킨 채 포기되었으며 새로운 댐에 대한 자금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전에는 댐을 좋아했으며 아직까지도 단독 규모로는 제일 큰 자금 제공자인 세계은행은 이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 되었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댐 건설자 및 자금제공자로부터 자연보호주의자와 댐 반대 항의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회합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회합이 1997년 4월 10~11일에 스위스의 글랜드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합의 목적은 댐을 계속해서 건설하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건설한다면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도출을 위한 것이다. 어려움은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비용과 댐 건설의 편익을 아직도 신뢰성있게 측정한다는 것이 극단적으로 어렵다는 데에 있다.

4. 댐의 나쁜 영향

댐이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나쁜 환경적인 영향의 대부분은 이제까지 댐의 편익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에 연유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댐이 제공해 주는 일정하고 신뢰성 있는 관개는 토지를 물에 흠뻑 젖게 만들게 된다. 물은 땅 속의 염분을 땅 표면으로 옮겨 놓게 되며, 대기는 소금을 지표에 남겨 둔 채 물만 증발하게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마침내 땅은 곡식을 자라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염분을 가지게 된다. 홍수의 방지조차 뒤섞인 축복인 것이다. 수량이 많아진 강물에 의해서 하류로 한때 운반되었던 침니(沈泥)는 토양을 보충해 주고 영양을 공급하였으나 이제 이와 같은 침니의 여행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저수지에 달라붙어서 쌓여갈 뿐이다.

이와 같은 그리고 다른 문제들 (하천을 질식시키고 삼림에 물이 차게 됨으로 인해 식물과 동물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은)에 대하여 몇몇 부분적인 대책이 있기는 하다. 땅 속에 설치하는 지중 배수 설비는 염분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며, 댐에 설치하는 채널은 어느 정도의 침니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며, 물고기 사다리는 연어와 같은 이동하는 물

고기에게 그들의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이동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지라도 댐의 영향은 예언할 수가 없다. 아스완댐과 아스완 하이댐은 둘 다 나일강에 있으며 둘 다 프로젝트의 전형적인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댐이라 내 세우는 것이지만 하류의 농사가 가능한 경작지가 충분한 침니를 얻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서서히 부분적으로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5. 홍수의 방지와 농토의 황폐화

홍수를 막아 준다는 댐의 이점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통을 주는 장애물의 하나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하천 가까이 있는 대부분의 토지는 홍수에 물이 공급되어 홍수가 물러날 때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것이다. 댐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중지시키고 따라서 하류의 몇백만 명의 사람들의 생계를 빼앗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댐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토지의 관개로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하게 된다고 여겨 왔으나 나이지강에 있는 카인지 댐에 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댐은 하류의 쌀 생산을 18%, 물고기 어획량은 60~70%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조사연구는 나이지의 지류에 있는 보콜로리 댐의 경제적 편익은 하류 마을 사람들의 곡물, 물고기 및 가축의 손실보다 크다고 평가 분석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에 대한 철수와 재정착이다. 이들 댐에 의해서 퇴거당하는 대부분은 대개—토착인 그룹으로서 그렇게 너무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며—새로운 환경에 가장 잘못 적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흔히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활양식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은행 자체도 댐에 의해서 강제 퇴거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니라 단지 얼마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결론짓고 있는 것이다.

6. 이주지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

패서디나에 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IT)의 인류학자인 다이어 스쿠더씨는 세계은행이 계산에 넣은 몇몇 댐들은 겨우 몇 년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견은 실제보다 더 좋게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잠바브웨로부터 잠비가 분리된 잠베지에 있는 카리바 댐이 건설되면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였는데 그들의 생활이 초기에는 개선되었으나 그들에게 배당된 농토가 빈약하고 그들의 새로운 이웃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들의 2세대들은 분명히 그들 부모들의 생활보다 더욱 나빠졌다.

또한 사전에 계량화하는 것이 아직 어렵기는 하지만 댐에 의한 사회적인 불이익은 훨씬 잘 이해되고 있다. 아직도 부

죽한 것은 댐이 계획단계에 있을 때 그것을 고려에 넣을 수 있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건설하려고 하는 댐에 열중하고 있는 정부는 흔히 너무 많은 환경 또는 이주대책으로 인한 사업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에 대하여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그리고 세계은행과 같은 외부기관이 그와 같은 조건을 첨가하려고 시도할 때 정부 (또는 은행)는 흔히 그것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짜증스러워 하며, 그것을 감추는 데에는 즐거워하는 것이다.

7. 국제회의 합의 사항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댐의 악명을 높이는데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 조차도 몇 년전에 댐을 포기하는 결론에 더욱 근접하였으며 이미 전력생산에 있어서 석탄에 더욱 역점을 두는 것으로 관측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태운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불유쾌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은행이 댐에 아직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이며 댐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랜드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만일 표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제위원회가 창설되고, 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들이 계획단계에서 참여하고, 또 건설의 옵션이 모든 대체방안에 대하여 가치를 비교하고, 모든 비용이 계산에 반영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댐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된다면 댐 건

설을 진행시켜도 좋다고 합의하였다.

8.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댐의 건설

이것은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전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댐 건설이 완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우발적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댐의 건설도 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 회의에서 댐 건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세계은행의 노력은 역부족이었으며 취급조차 하지 못하였다. 세계은행은 모든 새 댐에 대하여는 단지 조그마한 일부분에 대하여만 자금을 제공한다. 그리고 환경 또는 현지 주민에 대한 충격에 대하여는 과도하게 예민한 것으로 밝혀진 투자자들은 흔히 얼마 안되는 소수의 주저하는 사람들 편을 들게 되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만다. 그러나 아마도 지구상에서 댐을 건설해서 이익이 생기는 장소가 모두 없어질 그 때에 가서야 이와 같은 해로운 댐 건설이 중지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9. 문제의 사례들

가. 사다르 사로바르 댐

인도의 나르마다강의 사다르 사로바르 댐은 세계은행의 주민이주와 환경파괴에 대한 조건들—이 댐은 1985년에 세계은행 차관이 확정되었었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실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완전무결한 사례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독립된 보고서에 의하면 편익이 과다하게 추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충격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주민들의 재정착 조건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에 이 차관은 취소되었으며 인도의 최고법원은 1995년에 이 댐의 건설을 중지시켰다. 사다르 사로바르에 대한 성난 항의는 다른 곳에 대한 모델이 되었으며, 나쁜 조건의 댐이 어떻게 된다는데 대한 본보기로서 주목을 집중시키게 만들었다.

나. 판구 댐

칠레의 비오비오 강의 판구 댐은 처음에는 세계은행의 부속기구인 민간자본에 의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제금융공사(IFC)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첫 번째의 큰 댐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히트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제임스 울펜슨 총재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근의 보고서에 의하면 환경조건에 대한 대책에 실패한 것으로 IFC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3월에 울펜슨 총재는 칠레의 댐 건설 대행기관에게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대신에 칠레정부는 IFC 차관금을 상환해 버렸으며 보다 싼 이자와 보다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독일의 민간은행인 드레스트네르로부터 프로젝트의 소요자금을 차입하였다.

다. 바쿰댐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에 건설하게 되는 60억달러의 바쿰댐은 마하티르 모하마드 수상이 자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역성을 드는 프로젝트이다. 갖가지 압력단체들로부터의 항의와 함께 이 댐에 대한 이익발생에 대한 미온적인 보고서는 외국 투자자들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회사인 에크란은 충분한 자금을 말레이시아 국내의 자체 자금원만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라. 썬샤댐

중국이 1994년에 건설을 시작한 거대한 썬샤댐은 130만 명의 사람을 이주시켜야만 한다.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재정착 및 환경에 대한 중국의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됨으로써 3년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 댐은 스위스, 일본 및 독일의 자금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마. 에푸파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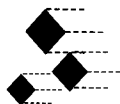
나미비아 정부는 곧 쿠네네강의 어디에 에푸파댐을 건설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몇 년전 세계은행의 조사보고서는 이 댐 건설을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큰 바보짓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정부의 컨설팅 엔지니어들은 보다 비용이 덜 들고 환경적으로 보다 친근한 네 개의 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광산 및 에너지성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큰 댐 하나를 건설하는데 더욱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댐은 비교적 적은 수(6천과 1만명 사이)의 사람만 이주시키면 되고 또한 많은 직업을 만들게 되기는 하지만 이들 새 직업의 대

부분은 해외로부터의 기능인력에 의해서 충당될 것이다.

바. 남뎀 2댐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라오스의 남뎀 2댐은 모든 댐들의 계획이 밟아야 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세 가지의 철저한 검토가 끝난 후에 자금을 제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는 이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되는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대체 프로젝트와의 비교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댐의 분수계(즉 물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가 는 구역을 말함)를 국립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가이다.

(자료: 'The Economist', 1997.4., 19)



라오스 — 남뎀 II 댐의 문제점

1. 사라져 가는 원시림

중부 라오스의 나카이 플라토는 한때 소나무 숲으로 뒤덮여 있었다. 오래 전의 일이 아니라 단지 10년 전만 해도 그랬다. 그런데 군의 산업 벤처가 이 지역의 벌목을 시작한 것이다. 1993년에 라오스 정부는 이 플라토를 통과하여 흐르는 뎀강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청신호를 보냈다. 나무들은

더욱 빠르게 벌목되었다. 이제 이 지역은 거의 메마른 불모지로 변하였다.

손상을 가하게 된 이래 이익도 많이 거두어 들였다고 댐의 프로모터는 말하고 있다. "이 플라토는 아마 100년 전 한때에는 생물 다양성 관계로 중요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다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남뎀 전력컨소시엄을 선도하고 있는 오스트 레일리아의 대형 건설회사인 트랜스필

드의 데이비드 이바라치씨는 말한다.

2. 번영으로 가는 승차권

대부분의 대형 댐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만일 환경적 및 사회적 비용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자생력이 있을 때 뿐인 것이다. 남뎀 II 댐은 이들 세 가지 문제 모두로부터 문제점을 제기 받고 있

다. 그러나 가난한 라오스 정부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는 이 댐이 번영으로 향하는 승차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오스는 목재 이외에는 수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며, 수력발전 전력을 이웃 나라들에 판매하는 것이 몇 가지 되지 않는 돈을 버는 옵션의 하나인 것이다.

이 댐은 450km² 저수지를 만들게 되며, 이 저수지는 이 플라토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약 4,300명의 사람들을 이주시킨 것이다. 정부는 그들을 재정착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프로그램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플라토는 생태학적인 손실의 원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된 관심사는 플라토를 둘러싸고 있는 4,000km² 집수구역인 것이다. 이 분수계의 약 85%는 동남 아시아의 마지막 원시림이다.

3. 15억달러의 프로젝트

남된 프로젝트의 발의자는 토사의 유출과 침니로 저수지의 바닥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분수계를 경계로 하는 유역을 보존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다고 말한다. 환경주의자들은 확신을 갖지 못하며 댐의 건설이 다른 프로젝트와 다른 문제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을 우려한다.

15억달러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세계은행은 이 프로젝트

에 대한 환경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리스크의 평가를 요구하였다. 세계은행은 잘못된 대규모 댐 프로젝트를 지지하였다는 것으로 한 때 맹렬하게 비판받은 적이 있으며 이제는 안전하게 업무를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4. 68만 1천kW의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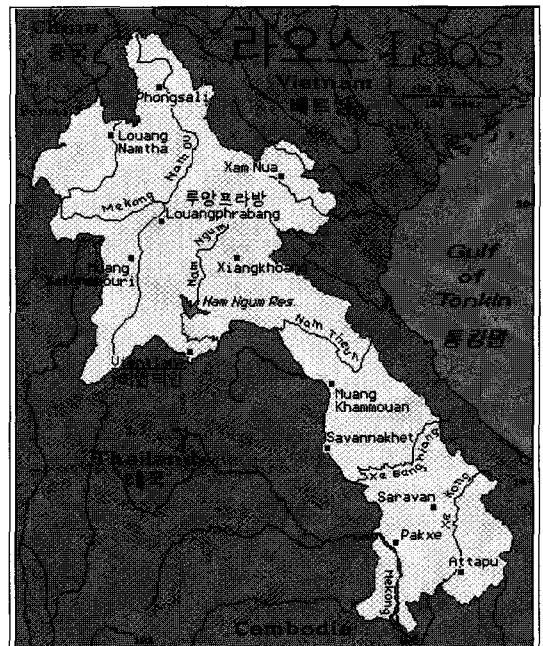
몇 가지 다른 알려지지 않은 사항들이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자생성에 대하여—그 규모와 사업비의 변동과 같은 작은 문제가 아닌—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댐의 가능한 설비용량 범위는 60만 내지 90만kW이며, 공사비는 1994년의 12억달러에서 현재는 68만 1천kW 발전소로서 15억달러의 가격표가 붙어 있다. “우리는 라오스 정부가 매우 선입관에 치우친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인터내셔널 리버즈 네트워크의 패트릭 매콜리씨는 말한다. “전력산업은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항상 편익을 너무 크게 과대평가하고 사업비는 너무 과소평가한다”라고 덧붙여 말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차관보증 없는 어떤 경우에도 댐 건설 컨소시엄에 제출하는 사업비는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판매로부터

약속된 황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틀림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여러 해를 두고 라오스의 오직 하나뿐인 고객인 태국은 가격문제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전력구매 합에서—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획득에 없어서는 안되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태국은 2006년에 연간 300만kW까지 전력을 구입하겠다는 양해각서로 구입 약속만 하고 있는 것이다.

5. 태국의 입장

태국은 이제 다른 보다 값싼 에너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민간 발전사업자와 미얀마와 같은 나라로부터의 천연가스가 있는 것이다. 라오스 컨소시엄과 태국의 전력 당국은 아직 가격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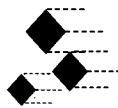


때문에 끈질기게 줄다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오스는 또한 전기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국으로서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남부 중국을 눈여겨 쳐다보고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과 중국은 그들 자신

의 댐 프로젝트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라오스는 외화를 몹시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댐이 그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더 엄격한 경제계획과 환경적인 규제없이 이 건설공사비는 높은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라오스 정부는 빈곤을

구실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무식을 구실이 되게 하는 것은 더욱 더 훨씬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료 : 'Asia Week, 1997. 4. 4)



싱가포르 — 전력회사의 다각적인 변신 시도

1. 독점체제의 붕괴

국영 전력 독점사업체인 싱가포르 전력(SP)은 기업체로서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게다가 SP는 해외투자를 비롯하여 다이렉트 메일, 유류 저장 그리고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본질적으로 다른 비즈니스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좀 특성에 맞지 않는 모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이 클 것으로 보이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업에 진출한다고 SP는 공식 발표하였다. 이를 위하여 SP는 둘레에 참호를 구축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인 싱가포르 텔레콤과 경쟁을 벌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락한 환경의 독점기업들은 그와 같은 식욕을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SP는 먹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하자면 리스크가 점심이 되는

것이다. 2년내에 투아스에서 120만kW의 발전소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게 되면 SP는 이 섬의 단독 전력사업체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이 발전소의 운영자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성숙한 경제는 이제 두 개의 전력 공급사업체가 뒷바라지 하여야 할 만큼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SP 단독으로도 이 도시 국가의 전력수요의 1.5배까지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2. 유류 저장과 우편 마케팅

이와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새로운 정신”이라는 구호가 생겼으며, 본연의 임무인 전력사업 이외의 활동에 개척정신을 가지고 진출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호 권평 회장이 이 구호를 선정하였다. 새로운 사업의 한 가지 계획은 여분의 저장 탱크를 사용하여 주류섬에 있는 석유화학

단지의 정유공장을 위하여 유류를 저장하는 일이다. 또 다른 것은 SP의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지렛대로 사용하여 직접 우편 마케팅을 제공하거나 신용카드의 발급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국외에서의 활동으로는 SP가 중국남부의 하이난섬에 미국 기업체인 엔론사가 건설한 15만kW 발전소의 50%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해외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거대 전력기업인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와 보르네오에 3만kW 발전소를 건설, 소유 및 운전하는 조인트 벤처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가장 훌륭한 에너지 회사가 되며, 역내 주변 국가에서 전력사업의 선도자가 되는 비전을 설정하였다”라고 호 회장을 말한다.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간에 8억 4천만달러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SP는 이 나라의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포함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SP가 역시 아시아에



서의 사업야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엔론이나 또는 영국의 내셔널과워와 같은 보다 큰 사업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직접 대결하여 경쟁하는 데에는 “이 회사는 깊이 있는 또는 경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컨설팅 회사인 부즈, 알렌 앤드 하밀턴의 부사장 로버트 모엘러씨는 말한다. 모엘러씨는 SP가 굵어모은 것으로부터 발전소를 짓고 운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컨설팅 또는 매니지먼트와 같은 적합한 지위를 이용하도록 기술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르게 하는 것은 임원회와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영다각화 아이디어에 반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한다.

3. 해외진출 준비금: 1억 4천만 달러

SP 간부들은 그 자체의 지금까지의 국

제적인 노력은 작은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우리는 5년 또는 10년후에 단지 후회하기 위하여 거대한 프로젝트에 뛰어들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전력회사의 사장이며 최고경영자인 보이 탁 합 준장은 말한다. 그러나 느리게 하는 것이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층은 여러 다른 곳 중에서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몇몇 큰 투자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SP는 다음 10년간에 단지 해외 투자를 위하여 1억 4천만 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SP는 또한 영국 텔레콤, 일본 전신전화(NTT), 그리고 정부의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그룹과 협력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 싱가포르 섬의 제2의 고정선로 전화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2000년에 정부가 발행할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면

허의 하나에도 주목하고 있다. “나는 SP 내에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호 회장은 말한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각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을 테이블에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SP의 능력은 싱가포르 전국을 커버하는 이미 확립하고 있는 케이블 덕트의 네트워크와 고객의 기본 자료이다.

4. 공룡과 도미뱀

싱가포르의 제2의 이동전화 운영자인 모빌원(아시아) 배후의 한 그룹을 포함한 두 개의 만만찮은 경쟁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급인 파트너와의 제휴와 국가적인 뒷받침으로 이 컨소시엄은 제2의 고정회선 면허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7억달러가 소요된다면 싱가포르의 3백만 국민이 여러 개의 유선 및 무선 사업자들의 존재를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지지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SP의 당초 주식공개는 1998년 초가 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이들 사업다변화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험하게 되는 셈이다. 주식의 첫 공개(IPO)는 1996년 초에 이 회사가 70억 달러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게 된 후 취소되었었다. 1993년과 1994년의

〈아시아 전력회사들의 성과〉

국 가	회 사 명	자본에 대한 이익률	평균 요금 센트/kWh
홍 콩	중화전력공사 (CL&P)	25.9 %	9.36
태 국	수도 배전공사 (MEA)	23.2	7.61
필리핀	마닐라 전력회사	14.5	11.28
말레이시아	테나가 나셔널사 * (TNB)	13.9	8.22
대 만	대만전력 (Taipower)	9.8	8.68
한 국	한국전력공사 (KEPCO)	8.4	8.44
싱가포르	싱가포르 전력 (SP)	7.6	8.6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PLN)	3.9	6.83
일 본	칸사이(關西)전력 주식회사	2.8	1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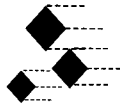
주 : 1993년 및 1994년 애뉴얼 리포트, SP 는 1996년 계획
자료 : 싱가포르 통상산업성

자산의 순가에 대한 수익률이 7.6%였으며 아홉 개의 아시아의 전력회사들 중에

서 일곱번째를 기록하였다(표 참조). 홍콩의 중화전력공사(CL&P)와 태국의 수도 배전공사(MEA)는 서로 비교할 만한 요금인 데에도 불구하고 각각 25.9%와 23.2%를 기록하였다.

주식 시장의 중단 이후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에 걸쳐 요금을 점차 올리는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몇

몇 정상급이며 가장 활동적인 비즈니스 지도자들을 SP 임원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싱가포르 전력은 경영을 격상시켜야 하며, 배타적인 분위기를 추방하여야 하며 또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매우 서서히 움직이는 공룡이다"라고 산업계 관측자는 말한다. 그러나 아직 이 도마뱀은 새로운 계획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자료 : 'Asia Week', 1997.4.4)



중국 — 깨끗한 풍력 에너지의 이용

1. 난아오 섬의 풍력발전

남중국해를 굽어 내려볼 수 있는 이 산비탈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첸 쉹군씨는 냉장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하루에 네 시간만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전기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한다"라고 60세의 이 농부는 회고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것에 의존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덧붙인다.

그러나 난아오는 의존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즉 꾸준하고 일정한 산들바람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섬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첸씨는 그가 필요로

하는 전기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람의 선물로서 얻게 된 것이다. 난아오섬의 그의 마을 위에 설치된 대형 풍차가 현지학교에 전등불을 밝히게 되는 외에도 첸씨의 냉장고와 TV 수상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2. 40개의 풍차에서 1320만kWh

난아오 섬이 풍력발전 에너지를 동력화하기 시작한 지는 10년이 조금 지났다. 1995년말 현재 이 섬에서는 40개의 풍차가 1320만kWh의 전기를 생산하였으며 이것은 전체 전력소비량의 44%이다. 계절적인 예측 불가능이 풍력을 이 지역의 모든 에너지원으로 더

충당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전력과 연계시켜 이것을 자생력 있는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난아오섬의 국영 난아오 풍력에너지 개발회사의 지배인인 리 류미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가장 좋은 바람이 부는 곳에 살고 있다"라고 말한다.

아직 중국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에너지원이지만 몇 천km 떨어진 일본의 입장은 중국의 더 많은 지방에서 이와 같은 난아오섬 방식으로 풍력을 동력화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너지의 약 75%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석탄은 공기의 질을 파괴시키며 산성비를 멀리 떨어진 도쿄에까지 내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아시아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의 3분의 2를 채굴하고 있다고 하와이 동서 센터의 에너지전문가인 찰스 존슨씨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석탄이 가지고 오는 모든 공해의 절반 내지 3분의 2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3. 2000년 석탄 생산계획: 14억톤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분명히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 실질적인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평균 10%의 급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중국의 에너지 수요—자원이 무엇이든지 간에—는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어떤 추정에 의하면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 1억 2천만명은 아직 전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수요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은 상이한 기술 사이에서 사치스러운 선택의 여지를 가지지 못한다고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풍력 기술제공자인 베스트라스 DWT의 매니징 디렉터인 톰 페터슨씨는 말한다. 이 나라의 석탄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2000년의 14억톤 석탄 생산목표는 훨씬 초과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 에너지 수요의 급증과 이산화유황

중국은 산성비의 주범인 이산화유황의 방출을 다음 세기에 들어설 때 1995년 수준으로 안정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의 사용이 어떤 공해물질 방출의 감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동서 센터의 존슨씨는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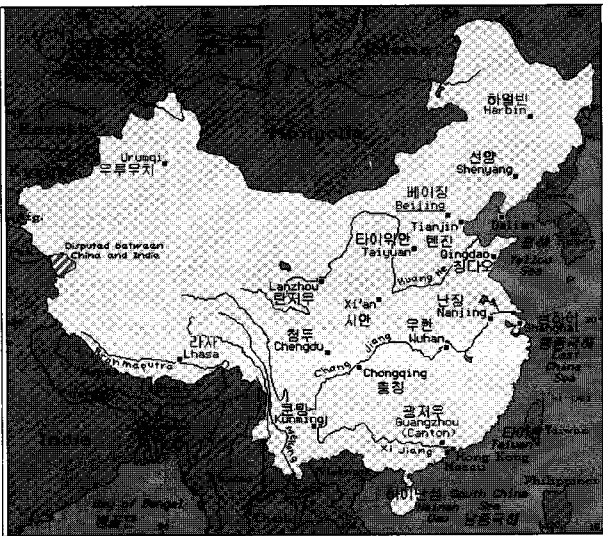
이에 대한 대책은 1차 에너지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석탄을 대체시킬 다른 보다 깨끗한 연료를 발견하는 것이다. 태양 에너지는—사용이 증가하고 있

기는 하지만—석탄 연소기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너무 비싸다. 그러나 풍력의 가격은 석탄과 같은 전래의 연료의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꾸준히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경제에 불을 지피는데 보다 새롭고 보다 깨끗한 방법에 대하여 찾아 나서게 됨으로써 내몽고로부터 하이난 섬에 이르는 현지 지방정부들이 풍력에 대하여 관심을 표시하게 되었다.

5. 2001년 풍력발전 설비 목표: 40만kW

그러나 바로 내일 아침에 중국의 하늘이 푸르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된다. 국가 계획위원회는 다음 세기로 이행될 때 풍력발전 설비의 목표를 40만kW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1996년에 설치되어 있는 5만 6천kW에서 일곱 배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풍력 에너지는 중국의 전체 에너지의 약 0.1%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풍력 프로젝트는 난야오 섬에서의 경우와 같이 현지 선로망에 단지 보조적인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점유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의 중국 및 몽고의 선도적인 경제 전문가인 리처드 뉴파머씨는 청결한 에너지는 외국 및 현지 투자 모두에 중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 내에서의 청결한 에너지에 대하여 무엇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장분야에 대하여 그 무엇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6. 풍력발전 단가: 6~10센트/kWh

“현재로서는 중국의 풍력발전 단가가 kWh당 6~10미국센트인데 비해서 새로운 발전소로부터의 재래식 전력은 전형적으로 kWh당 5 및 6미국 센트의 사이의 값이다”라고 난야오 섬에 28개의 터빈을 판매한 네덜란드-독일 회사인 노르텍 바르케 둘의 아시아 태평양 제너럴 매니저인 카르 유젠 파이펠씨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의 향상과 규모의 경제는 재래식 발전의 새로운 배출물 규제 요건에 따른 가격상승과 결합해서 풍력의 가격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베스타스의 페터슨씨는 “풍력은 재래식 발전소보다 약간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 만일 당신이 석탄의 세계시장 가격을 들여다 본다면 이것이 경쟁력이 있는 시점에 매우 가깝게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7. 소규모 풍력 터빈: 전국에 14만대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소규모 풍력 터빈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이 나라 여기 저기에 14만대가 흩어져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형 풍력터빈 시장은 인도의 그림자에 가려져 뒤지고 있다. 인도는 뉴델리 정부가 이 산업에 대하여 1989년 세금 인센티브를 도입한 이래 풍력에너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풍력 에너지가 유리한 점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풍력단지 전체에서 구조물에 의해서 차지되는 면적은 겨우 0.5~1% 뿐이고 그 나머지 땅은 농작물 재배나 목장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8. 풍력터빈 가격: 1,000달러/kW

풍력발전은 또한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투자사업이기도 하다. 풍력발전 터빈은 kW당 약 1,000달러의 가격이다. “당신은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하는 기술은 리스크가 적으며, 당신은 매우 빨리 그것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노르텍 바르케 둘의 파이펠씨는 말한다. “당신이 100개의 터빈을 설치한 단지를 가지고 싶으면 당신은 반년 안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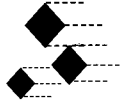
그러나 풍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기기구입에 소요되는 현찰을 얻는 일이다. 여기에서 유럽 사람들이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에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부자나라들의 클럽인 OECD는 풍력발전에 의한 중국의 전력 산업에 소프트 론을 제공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중국에 대한 상업차관 이자를 1994년에는 3천만달러까지 그리고 1995년에는 2천만달러까지 지불하였다고 베이징의 전력성의 시 펑페이씨는 말하고 있다.

9. 유럽 국가의 정부 지원

이와 같은 유럽 국가들의 지원책은 몇몇 미국 풍력터빈 제작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의 가격은 경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의 제조자들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금융적인 지원을 우리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미국 풍력터빈 제조자인 플로윈드의 아시아 그룹 회장인 왕 첸첸씨는 말하고 있다. “우리는 광둥성의 후이라이군에서 10만kW 프로젝트 건설에 합의하였으나 독일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소프트 론을 제의함으로써 우리들은 경쟁에서 탈락하였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그러나 아직 플로윈트는 내몽고에서의 새 계약을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1997년 1월에는 허베이성의 장지야고에 250kW 터빈 두 대를 공급하였다.

어떤 경우일지라도 “중국인들은 풍력발전의 비용을 낮추는 유일한 방안은 중국자체의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여 가능한 많은 것을 중국에서 제조하는 것이다”라고 베스타스의 페터슨씨는 말한다. “어느 범위까지는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말한다. 아직 난야오 풍력 에너지 개발의 리 류이씨는 낙관적이다. “우리는 앞으로 2 내지 3년 후에는 우리들 자신의 터빈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자료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7.4.10)



미국 — 규제완화와 스트랜드 코스트

1. 규제완화와 로비 활동

평균적인 보통의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전력사업의 규제완화라는 말을 들으면 지루하고 싫증을 내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수도인 워싱턴시와 주의 수도들은 모두 마찬가지로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큰 산업의 하나에 대한 구조변경 즉 리스트럭처링에 대한 검토작업에 여념이 없다. 많은 전기관련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몇몇 주는 캘리포니아, 로드아일랜드 및 펜실베이니아의 일방적인 전기 경쟁법을 제정한 예를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전력회사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높은 요금이 청구되는 대기업체들은 발작적으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용 전기사용 고객들은 별로 관심없이 아직 반응이 없이 즐고 있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로비의 대상이 적다. 대부분의 압력단체들은 지금까지 지역적인 일련의 독점으로 공급되어 온 연간 2000억달러의 전기시장에서의 경쟁은 좋은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십억 달러가 이와 같은 경쟁의 정확한 형태와 시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

이다. 더욱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들 세부 내용과 행정부 기관과에 의견차이가 벌어지게 되며 아직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비스트들은 일반적인 이들의 활동보다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고 있는 것이다.

2. 두 개의 집단의 상반된 이해 관계

전기사업은 네 가지의 주요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발전, 송전(특별고압 전기를 송전망에 따라 송전하는), 배전(보다 낮은 전압의 전기를 현지 지역에서) 그리고 각각의 전기사용 고객에게 대한 판매의 네 가지이다. 발전분야에는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었다. 1996년에 이 사업에 대한 연방 규제기관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전력회사에 대하여 발전회사에게 그들의 전기를 다른 전기회사와 도매사업자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송전선로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현재 협의중에 있는 보다 경쟁의 진정한 형태는 각각의 소비자가 경쟁하에 있는 공급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논쟁은 두 개의 폭넓고 반대되는 제휴

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다. 즉 하나는 경쟁을 빨리 도입토록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사업자들을 위하여 보다 느린 단계적 도입과 보다 편한(어떤 사람들은 엉뚱하다고 말할) 조건을 주장하는 것이다. 첫번째 제휴 집단은 자동차 및 화학공장과 같은 전기요금을 낮추기에 열심인 산업체 전기의 대량 소비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몇몇 인디애나폴리스 전력 및 전등 회사와 같은 기존 전력회사들은 자신들의 경쟁하에서 그들이 성공적으로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에너지회사, 예를 들면 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엔론은 가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 체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3. 에디슨 전기협회(EEI)의 로비

이와 같은 제휴집단은 경쟁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큰 소리로 떠들어 델 뿐만 아니라(한 추정에 의하면 평균전기요금이 무엇이든 15%에서 43% 하락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한 주에게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은 만일 요금이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 곳으로라도 옮겨 갈 것이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두번째 제휴 집단측은 논의의 여지가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제휴의 핵심은 에디슨 전기협회(EEI)로서 이 나라 전기 사용량의 4분의 3을 공급하는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를 대변하는 로비단체로서 경쟁이 이익을 격감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의 회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같은 그들의 불안에 대한 대책은 그들의 합리화의 활성화이다. 즉 이 분야에서 경비절감을 기대하고 15개의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휴는 또한 회원들의 직업이 사라지게 될 국제 전기노동자 동업조합과 같은 노동조합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전기사업자이 농어촌전화 전기협동조합과 지방자치체 전력회사들이 규제완화가

세금 면제와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4. 스트랜드드 코스트와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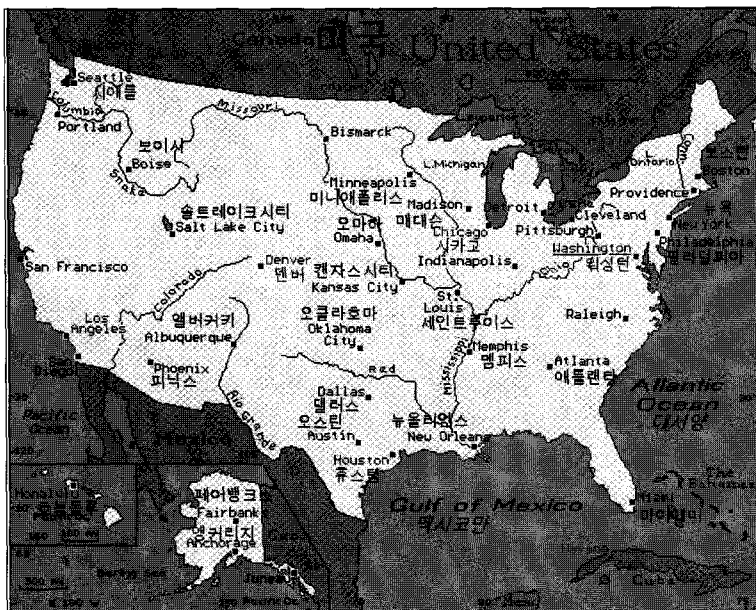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용인 스트랜드드 코스트는—전기 규제완화에서 가장 논쟁을 일으킬 만한 이슈인—두번째 제휴자들 집단의 힘에 대하여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스트랜드드 코스트는 전력회사들이 하게 되는 투자로서 경쟁이 도입되면 요금이 낮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 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즉 타산이 맞지 않는 투자인 것이다. 여기에는 원자력발전소(이제 훨씬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체 에

너지에 의한 전력 공급자와의 장기간 계약이 포함된다.

EEI는 이와 같은 스트랜드드 코스트에 대하여 전력회사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는 어떤 경쟁이라는 이야기가 대두하기 전에 유망한 이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이해에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상이 없다면 수백만 명의 소액 투자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맑고 오래된 플랜트를 새롭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에 의한 “창조적인 파괴”를 해가면서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투자에 의하여 채워진 대부분의 산업회사들이 정부에 의해서 곤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보상에 대한 공동 인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FERC, 에너지성 그리고 여러 핵심적인 연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스트랜드드 코스트에 대하여는 어떤 종류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논쟁은 보상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불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스트랜드드 코스트는 10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가 넘는 범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전력회사는 최근에 그들의 연간 수입액보다 큰 합계 285억달러를 스트랜드드 코스트 보상금으로 지급 받



았다. 더욱이 그들은 다른 지불(공제, 이윤 환급 등의)에 우선해서 돈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특별한 목적·활동에 충당되는 운동자금을 줌으로써 많은 기업체들로 하여금 주의 전기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생각해보도록 여쭙면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보상의 시점—그리고 이것을 연방정부에 의해서 주정부에 강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두번째 제휴집단의 편에서는 것으로 보인다. EEI와 이들의 동맹자들은 즉각적인 연방정부 지시에 의한 보상에 반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제휴의 몇몇 그룹은 연방정부의 지시는 주 정부 일에 대한 위협적인 간섭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논쟁은 공화당 인사들에게 호소하는 논리가 될 것이다.

6. EETI 로비의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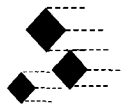
어떻든지 간에 단지 몇몇 소수의 주(州)만이 2000년전에 가정용 전기사용 고객에 대한 완전한 경쟁을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또한 몇몇 주에서는 산업용 고객을 위한 경쟁은 보다 빨리 계획되고 있다). 워싱턴시에서는 아직 상원에서 규제완화에 대하여 어떤 심각한 논의가 없었으며, 하원에서조차도 법안이 위원회로부터 제기된 것이 없다.

그동안 행정부의 규제완화 의안이 오랜 시일이 걸리는 부처간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진로를 잡아가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베일을 벗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경쟁을 조속히 도입하는 길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력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전달수단으로 사용되게 될 것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다. 행정당국은 그들의 환경친화적인 증명서를 자랑하고 있으며 많은 환경주의자들은 규제완화가 보다 값

싸고 공해를 일으키는 석탄 발전소의 건설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불평하였다(그러나 이와는 달리 재생가능 에너지를 더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추가되는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경우).

요컨대 EETI와 이들의 제휴자들의 규제완화에 대한 논쟁은 이의 시행을 느리게 지연시키자는 데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산업체 전기사용자들은 이따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약속받는다. 단지 한가지 사건만이 신속하게 그리고 진정한 경쟁을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다. 즉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그들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갑작스러운 큰 파도가 바로 그것이다.

(자료: 『The Economist』 1997.5.3)



미국 — 규제완화와 농어촌전화 협동조합의 우려

1. 농어촌전화 협동조합(REC)

1938년 어느 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조지아의 웹 스프링스에 있는 그의 작은 오막살이에 발부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짜증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전기요금 청구서는 뉴욕의 하이드파크에 있는 그의 집에서 지불하는 전기요

금의 네 배가 되는 kWh당 18센트의 전기요금을 그의 오막살이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었다. 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고 대통령으로 전력회사들이 미국 농어촌을 갈취하고 있다는 그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이와 같은 신념의 결과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농촌전화국(REA)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 REA는 전기를 원하지만 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에 의해서 기피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공동체에 기술적인 자문과 저율의 용자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실상 전 미국은 kWh당 약 8센트의 전기요금으로 전기의 공급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산업용 요금은 이것의 절반 수준이다.

농어촌전화 협동조합(REC)과 지방자치체의 전력회사(시 또는 주가 소유하는 비영리 전력회사)들은 현재 비교적 작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국 전기소비자의 전기요금 수입에 있어서는 약 20%, 고객 수에 있어서는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규제완화후의 정부가 얼마나 그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들은 오랫동안 지방자치체의 전력회사와 REC들이 이자가 저렴한 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세금을 적게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유리하다고 불평하였었다. REC들은 116억 달러의 미상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2억 9천만달러의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적인 농촌전화 협동조합은 연간 정부에 25달러의 부담을 주고 있다.

2. 전국농어촌전화 협동조합 협회(NRECA)의 활동

특히 REC들은 관심을 끌게 하는 대상들이다. 그들은 미국 전국의 전선과 전주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농어촌전화 협동조합은 전국토의 73%를 커버하고 있다. 그리고 46개 주의 3000만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며, 자산은 60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경제학 교수이며, NRECA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연차총회에서 기초 연설을 하였던 레스터 수로우씨에 의하

면 민간 발전소들에 의한 그들의 경쟁적 우위의 시대는 아마도 지나갔다고 말한다.

NRECA는 강력한 로비 단체이다. 몇 십 년에 걸쳐서 구조개혁에 대하여 쓰러진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하는 공화당의 손에 의한 규모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1993년에 미국 의회는 REC의 연리 2%의 대출을 박탈하였으며, 돈을 더 요구하는 881개의 협동조합의 몇몇에 대하여 원호신청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가계상태 조사를 적용하였다. 이제 대출은 지방자치체의 면세 채권물에 묶이게 되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그들의 자금조달의 70%까지는 이제는 민간부문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이 1993년의 77% 수준으로 내려 1997년에는 3500만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규제완화와 경쟁시대

전화협동조합은 워싱턴으로부터도 대출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소유 기업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 더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들은 민간의 비영리로 운영되며 그들의 지방세 납세자에 의해서 소유되는 단체인 것이다. 전형적인 REC는 농어촌에 있으며, 9,000명의 회원과 1200만달러의 연간 수입을 가지며, 선로 1 마일당 여섯 개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 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는 1 마일당 평균 35개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협동조합도 농민에게만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주리주 브란손의 컨트리언웨스턴 마을, 콜로라도주 바일의 스키장 등도 역시 협동조합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파산하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해 주는 것이 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에 많은 REC들이 원자력 발전과 대형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였다. 원자력 발전의 가격이 상승하고 석탄발전소가 인화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너무 많은 전력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몇몇 협동조합은 큰 부채를 안고 쓰러졌다. 이때의 부담으로 REC들이 간신히 연명하게 되었으며, 이때의 부담으로 REC들의 4분의 3이 그들의 경쟁자들인 투자자 소유의 전력회사들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규제완화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유인 것이다.

라스 베이거스에서 수로우씨는 REC들이 다른 종업원 소유의 협동조합이 경쟁시장에서 번성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UPS)를 주목하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REC들이 전기공급을 위한 규범을 마련할 수 있게되지 못하는 한 "당신들은 오래 남아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다.

(자료: 『The Economist』 1997.5.3) ■